

울진군, 교통 인프라 개선 등 ‘휴식형 여행지’ 경쟁력 강화

택시 요금 지원, 농어촌버스 무료 망양정 일출 등 관광콘텐츠 풍성 이달 말 ‘울진대계와 붉은대계’ 축제

설 황금연휴를 앞두고 복잡한 도심 을 벗어난 조용한 여행지를 찾는 수요 가 늘고 있다. 울진은 철도 접근성 개 선과 겨울 관광 자원을 앞세워 휴식형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은 2025년 12월 말 KTX 개통 이후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이어 동해선 전 구간 개통으로 여객 운행이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부산권과 강원권 에서 접근성이 높아졌다. 하루 왕복 3 회 운행되는 KTX 이음 투입으로 설 연휴 기간에도 비교적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교통 여건 변화는 울진 관광 흐름에 도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 거리 부담 으로 방문을 망설이던 관광객들도 주 말이나 당일 일정으로 찾을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되면서 체류형 관광 수요 확



울진역.

/울진군

대가 기대되고 있다.

울진군은 철도 개통과 연계해 지역 내 이동 편의성 강화에도 나섰다. 울진 관광택시는 4시간 이상 이용 시 요금 의 60퍼센트를 지원해 주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운영되 고 있다. 군 전역을 운행하는 농어촌버 스는 전 구간 무료로 제공돼 차량 없이 방문한 관광객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다.

겨울 울진의 대표 관광 자원은 온천 이다. 백암온천과 덕구온천은 겨울철 피로 회복을 위한 휴양지로 알려져 있 다. 백암온천은 알칼리성 탄산수 온천 으로 덕구온천은 국내 유일의 자연 용 출 온천으로 각각 특징을 갖고 있다.

동해를 따라 펼쳐진 죽변항과 후포 항 일대는 겨울 바다 풍경과 함께 다양 한 체험 시설이 마련돼 있다. 스카이라 일과 스카이워크 등 해안 관광 콘텐츠

와 더불어 망양정 일출은 겨울철 울진 을 찾는 관광객들이 꼽는 대표 장면으 로 평가된다.

울진 겨울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요 소는 울진대계다. 청정 동해에서 잡힌 울진대계는 제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온천 휴양과 해산물 미식을 함께 즐기는 일정이 겨울 관광 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설 연휴 이후에도 관광 일정은 이어 진다.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는 2026 울진대계와 붉은대계 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 동안 울진대계와 붉 은대계 시식과 함께 공연과 체험 프로 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설 연휴를 계기로 울진 관광의 강점을 알리고 연휴 이후 에도 축제를 통해 관광 흐름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산과 바다와 온천이 어우 러진 울진에서 겨울 여행의 여유를 느 켜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진=손기섭 기자

gbnews808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항만공사

친환경 북극항로 시대 선제대응

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극지연구소(KOPRI),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친환경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갖췄다.

4개 기관은 지난 9일 BPA 사옥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발 굴 지원과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서기 로 했다.

항만 물류·정책 연구·기술 분야를 각각 대표하는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북 극항로 관련 기술·정보·연구 성과를 공유하 고, AX·DX 기술 및 정책 분야에서도 협력 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시

25개 직렬 1096명 공무원 선발

부산시가 올해 9급 행정직 436명, 9급 사 회복지직 176명 등 25개 직렬 1096명을 선발 키로 했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부산 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주요 직렬로는 ▲의무직 5급 7명 ▲행정직 7급 15명 ▲행정직 9급 436명 ▲공업직 9급 39명 ▲시설직 9급 150명 ▲연 구직 11명 등이다.

올해 임용시험은 상·하반기 2회 시행하고 의무직은 별도 시험으로 수시 채용된다. 상 반기는 6월20일, 하반기는 10월31일 진행 예 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해남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해남군은 가뭄과 수질사고 등 예기치 못 한 수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완료 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해남정수장(지방상수 도)의 광역상수도(장흥댐) 즉시 전환이 가능 해지면서 사고 발생 시 수계 전환을 통해 해 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에 신속한 비 상급수가 가능해졌다.

특히 비상공급망은 주요 송수관로를 이중 으로 확보하는 복선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평상시에도 수압·수량·수질의 안정성을 높 인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부산시교육청

‘부산교육 뉴스레터’ 전면 개편

부산시교육청이 2004년 5월 창간 이후 20 년 넘게 운영해온 ‘부산교육 뉴스레터’를 전 면 개편한다.

시교육청은 10일 발행한 제761호부터 새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콘텐츠 구성과 구독자 관리 체계까지 단계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구독·해지·수신 확인 등 구독자 관리 기 능도 개선하고, 콘텐츠 아카이브 체계를 갖 추는 한편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홍보로 콘텐츠 확산 효과를 높 여나갈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속도낸다

핵심 특례 중심 정부부처 설득 미래특구 등 특별법 적극 반영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 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 심 특례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한 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019년부터 전 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준비해 왔으며, 실질적인 제정과 권한 이양을 목표로 총 335개 조항, 특례 319개를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2월 5일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9일 입법공청 회를 거쳤으며, 현재 소위원회 심사 단 계에 있다. 오는 12월에는 전체 위원회 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 이다.

/대구=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도와 대구시는 행정통합을 함 께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협력해 통합법안의 공통 사항을 우선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조작·재정 ▲미래특구 ▲경북 북부 균형발 전 ▲첨단 전략산업 분야 등 핵심 특례 40여 건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 는 입장이다.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소관 정부부처 설득에 나서고 있다. 국 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은 앞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제정에 이어 통합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고 있 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타 시·도 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도 주요 핵심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김진곤 기자 jingon@

부산시, 해운 중개사·해양산업운용사 유치

클락스 사무소 개설, 워터라인 이전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해 운중개업체인 클락스 코리아(클락스)부 산사무소 개설과 해양산업특화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워터라인)의 본사 부 산 이전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1852년 영국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해운 중개 및 컨설팅 기업인 클락스(런 던 증권거래소 상장)는 현재 25개국에 5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 다. 한국법인인 클락스 코리아의 부산 지점 설립을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은 물론 독보적인 해운 데이터 분 석력을 지역 금융업계에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 해양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특화 운용사인 워터라인은 선박금융부터 항만 인프라, 물류, 조선

기자재 등 해양 대체투자 분야의 풍부 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유치를 통해 부산 으로의 단계적 분사 이전을 추진함으 로써 유망한 투자 기회 발굴과 수익 확 대를 통해 지역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입주 기업들에 업무시설 제공 과 임대료 무상 지원, 정책 금융기관과 의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부산 해양금융이 정책기관 중심으로 기반을 닦아 왔다면 이제는 글로벌 정보력을 갖춘 클락스와 혁신적인 민간 운용사 가 시장을 리드해야 할 때”라며 “이번 유치 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 리 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문화관광공사, ‘TTE 2026’ 참가

경북 관광지·인센티브 제도 등 안내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SMX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리핀 트 래블 투어 엑스포 2026(Travel Tour Expo·TTE 2026)’에 참가해 경북 관광 의 매력을 현지에 알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2년 ‘마부하이(환영합니 다) 경북’을 주제로 한류 관광자원을 소개한 데 이어, 2024년과 2025년에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 벚꽃 관광 테마 등을 앞세 워 현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 어냈다.

올해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 북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과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현



경북문화관광공사 ‘TTE 2026’ 홍보부스.

/경북문화관광공사

완도군, 800억 규모 지역화폐 발행

소비 촉진·자금 선순환 구조 강화

완도군은 올해 완도사랑상품권을 8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상품권 할인 판매와 정책 수당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난 2019년 첫 발행됐으며 누적 판매액은 2406억 원, 지난해 679억 원이 판매돼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전통시장, 음식점, 골목 상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에서 사용 비중이 높아 매출 증대 와 상권 회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정책

수당과 지원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 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군은 상품권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 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 중심의 유통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더 편리 하고 효율적인 지역 화폐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완도사랑상품권은 군 민의 가계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 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면서 “앞으 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 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